

토론요지

임양빈 건양대 교수

- ‘공주의 비전과 발전전략’에서 공주의 미래상을 산업경제도시(34%), 역사문화관광도시(23%) 순으로 제시
- ‘2018 올해의 관광도시와 공주관광발전구상’에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2015년 KTX호남선 공주역 개통, 2015년 백제역사유적 세계유산등재,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4개 분야 사업추진에 지속가능성 확보
- 이와 관련하여 공주는 산업경제도시를 기반으로 역사문화관광도시를 도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2015년 백제역사유적 세계유산등재와 공주의 정체성 확보
 - 상관관계, 인과관계
 - 상품이 지역별 시장점유율과 가격, 상품 구성, 지역특성과 같은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상품에 대한 수요를 완전히 설명해주지 않음
 - 자료로는 알 수 없는 상품에 대한 평판, 전반적인 품질, 타 지역 상품의 평판이나 품질까지도 가격과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미침
- 독일의 역사문화도시 보전관리정책
 - 1950년대: 전후복구와 도시개조의 대립
 - 1960년대: 자동차 도시와 대규모 도시개발
 - 1970년~80년대: 상향식 도시계획의 시작과 도시개발진흥법의 제정
 - 1990년대 이후: 동독의 역사문화도시 보존관리 지원 및 심화 발전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보호지원 프로그램 제정(2009년): 지역 도시 차원에서 역사문화유산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를 새롭게 정립,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시 보전정책 추진, 역사적 건축물의 집중적인 보전관리, 역사적 건축물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관계를 갖는 주변지역의 관리, 보존관리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 지역특성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제도 정비

<법정계획>

- 역사문화유산의 보호 : 역사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규정(가로광장 구역)
- 지구단위계획: 지구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보전 개발 재생)
- 경관규정 : 지역 고유의 경관보전을 위한 규정(지역 고유의 경관특성)
- 건축물규정: 지역 고유의 건축물 형태 규정(건축물 형태 지침)

<비법정계획>

- 경관제한: 지역의 경관 문제점 파악(지역 특성 제시)
- 주민참여: 주민들의 이해와 보전 필요성 공유(지속적인 행정지원)

○ 향후 고려사항

- 지역특성에 따라 보전의 유연성을 확보한 계획수립: 역사경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역사문화유산의 보호구역으로 지정, 지역의 고유경관을 보전하되 현대적 재해석도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규정 대상지역으로 지정
- 원칙적으로는 경관보전을 우선, 지역여건에 따라 규제내용을 다양화: 역사문화유산의 보호규정은 원칙적으로 구역의 경관보전만을 규제, 용도보전이나 구체적인 형태규제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행정재량을 통해 규제
-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역사문화도시의 보전관리: 보존해야 할 경관특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방향을 정립, 지역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형태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정을 통하여 경관관리의 실효성 확보
- 비법정 계획 및 주민참여활동 등을 통한 보전관리정책의 보완: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의 폭 확대 및 지속적인 지원, 관련 행정기관, 시민단체 및 전문가 간의 협력을 통한 법정계획과 비법정계획, 주민참여 활동 간의 상호연계 강화